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1999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도서관계에 여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도서관계는 올 한해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및 민간위탁 문제, 대학도서관의 전자계산소와의 명칭 및 기능 통합, 전문·특수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일 뿐만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에 도서관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本誌面을 통하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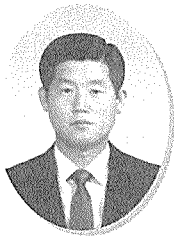
[설문사항]

- ① 귀하께서는 1999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김옥배

도서관은 봉사가 제일의 사명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1 1997년 말에 시작된 IMF의 고통은 1998년에 이어서 199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1999년에 약간의 경기 호전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강력한 구조조정과 적당히 높은 환율을 전제로 하는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계의 입장에서는 1998년과 비교하여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겠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아직 뚜렷한 지침은 없지만 인원의 감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서의 업무분담이 가중될 것이고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예산의 감축

과 비교적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대부분의 구입도서가 외국서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자체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자료구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 국민이 겪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여유 있는 환경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시기를 단축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며, 도서관은 봉사가 제일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그리고 1998년도 총회에서 결정하여 대학도서관 평가 기준안을 연구 검토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므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높였듯이 1999년에도 회원교가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기총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으며 특히 회원교 직원들을 위한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연2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자

질향상과 도서관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또 회원교 직원들의 연구의식을 고취시키고 연구결과와 각종 자료를 통계화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도서관보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그리고 회원교 도서관 증건관리자(사서사무관·서기관) 회의에서 대학도서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회장 한성택

학부제도입에 따른
사서직의 교육수준 문제
해결 필요



1 '99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도서관계에 여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현안문제점, 그리고 4년제 대학의 학부제도입에 따른 복수전공의 허용으로 야기된 사서직의 교육수준 문제점 등은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중에서 공공도서관 문제는 도서관계의 집약된 방향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서직의 기초가 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정리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합리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된 바탕 위에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이야말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서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입장이 상호 존중되고 편견 없는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현안문제점 이외에 여러 가지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으나 성숙된 도서관계의 역량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신장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우리 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회의 기본 활동 방향은,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서직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아울러 문헌정보학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참여하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로 전반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도 예외는 아님으로 이를 위한 특단의 자구 노력을 경주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중요시 해야한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은 독립교육기관으로서의 확실한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전문대학교육협회에서는 금년도에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여 학과 특성화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모형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에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우리 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4년제 대학의 복수전공 허용제도에 따른 문헌정보학교육과 사서자격 기준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교육의 내용을 점검하고 사서자격 기준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활동을 중점사업의 하나로 취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심화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99년도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학력파괴에 대처하는 경쟁력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우리 교육협회의 역량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박형림

협의회 홈페이지 개설 및
전문대학 도서관 모델링 작업
추진 계획



1 가장 힘든 한해가 지나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도서관계에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지난 1998년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다. 기묘년에는 이렇듯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사회에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에 기존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심을 수 있도록 관종을 초월한 도서관인 모두 노력한다면 도서관계의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말 좋은 대학의(지역사회의) 심장부가 아니라 심장의 역할과 심장의 역할이 부실할 때 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상상한다면 우리 도서관계는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998년은 공공도서관계에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해였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해당 관종이 아닌 다른 도서관계의 일부를 제외한 수많은 도서관인은 무엇을 하였는가? 혹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었는지? 말뿐인 우려는 아니었는지? 반성하여야 하리라 보며 우리 협회도 깊은 반성과 분발을 다짐해본다.

2 우리 협의회는 1999년 기묘년에는 전국 150여개 전문대학의 모든 회원교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의 시설, 예산 및 인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미나 및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세미나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협의회 활동 상황 및 전문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협의회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무리한 시설 확장과 전문대학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대학교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무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 및 교수 현장 사서들 및 기타 전문가들로 팀을 이루어 전문대학 시설 및 장서, 학생정원에 맞는 이상적인 시설기준인 전문대학 도서관 모델링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제껏 전문대학(2.3년제)의 기본 목적보다 대학도서관이라는 기준에 너무 얽매어 학습보다 연구중심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힘을 써왔다.

짧은 학습기간동안 이용자들의 현실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용자들을 홍보는 일이 없도록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과 기능, 목표에 맞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재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이용남

학회의 제반 활동에
회원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는 기반작업에 노력



1 학계는 문헌정보학 전공에 관련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우리 학문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고뇌가 증폭될 것이며, 도서관 현장은 과거에 보지 못한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도서관의 기반으로 서 기능하여야 할 공공도서관계가 경향각지에서 더욱 강도 높은 도전에 시달릴 것이며, 온 도서관계는 이에 맞서 싸우느라 상당한 에너지의 낭

비가 있을 것이다.

명칭변경을 통해 도서관 간판을 내리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책략이 전국에 도미노 현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논리 일변도의 민간 위탁의 파고가 공세를 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 대부분의 학회는 기본적으로 그 활동의 패러다임이 유사한 만큼, 한국문헌정보학회도 과거 활동의 기본 틀이 지속될 것이다. 작은 규모의 모집단 인적자원을 공동 대상으로 하여 여러 학회가 운영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학회의 제반 활동에 회원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는 기반작업에 중점 노력하고자 한다.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 이해연

도서관계의 문제의식을
사회에 확산, 도서관운동을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1 1999년도에는 이제껏 도서관계가 안고 있었던 정책적인 문제, 도서관내부의 문제 등이 첨예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변화 모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한 면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 압력의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현상이다. 정보화, 세계화와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변화는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간

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설 수 있는 기본 토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계는 우리 사회 내에서 기반형성과 시민의 합의를 축적하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문제의식을 사회에 확산시켜,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과 정보접근권의 기반형성 요구를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 도서관운동연구회의 1999년도 사업방향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는 공동체운동의 기틀 마련이다. 이는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추구하고 있는 조직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연구회 조직운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회가 단지 현장 사서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수단화된 조직이 아니라, 도서관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치적인 공동체를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는 도서관운동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이제껏 도서관운동이라고 할 때는 현장의 문제나 민간 도서관운동, 내지는 현장 사서직운동 등을 포함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운동은 보다 근원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고 또한 포괄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광범위한 접근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셋째는 연대사업의 강화이다. 두 번째 사업방향을 기반으로 도서관계 내외의 관련 단체들과 도서관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기초를 형성하고, 대 시민운동을 벌여나가하고자 한다.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원장 이종문



과학화를 시도하는 도서관을 위한 컨설팅 등 정보화 사업 중점 전개

1 우리 나라의 1999년도 도서관계는 도서관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계는 지난해부터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기능변경, 대학도서관의 전자계산소와의 명칭 및 기능 통폐합, 전문 특수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관종을 초월한 전 분야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관종별로 올해의 도서관계를 간략하게 전망하면,

첫째, 공공 도서관은 이미 명칭변경이 기정 사실화된 도서관을 중심으로 기능의 변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관계와 주관 기관과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대학도서관 역시 외형적 통폐합이 이루어진 도서관을 중심으로 기능변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명칭과 기능을 통폐합하지 않은 도서관들도 경영합리화, 도서관 기능의 과학화 등을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대학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전문 도서관은 연구소나 기업의 통폐합에 따른 도서관 대 도서관의 통폐합과 단위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IMF에 근거한 구조조정으로 관종을 초월하여 도서관 조직의 축소 지향적 통폐합

과 이에 따른 사서인력 감축 등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는 도서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련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와 저력을 결집시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사회간접자본인 도서관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 우리 포럼은 1995년 창립 이래 도서관 과학화를 위한 정보제공, 사서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과학화를 시도하는 도서관을 위한 컨설팅 등 정보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포럼의 1999년도 중점 사업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언론 및 출판

- 1996년부터 인쇄판으로 발간해온 계간 <디지털도서관>을 과월호에 한하여 CD-ROM 판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는 DLK&CU(<http://www.dlk.co.kr>)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Database판으로도 인쇄판 발행 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 1998년부터 도서관, 전산 분야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는바 1999년부터는 분야를 모든 학술분야로 확대하여 연간 10종 이상의 단행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2) 교육, 세미나

1996년부터 매년 1회 한국디지털도서관 포럼, 첨단정보솔루션발표회 등 각종 세미나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상설 첨단정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DLK&CU가상대학을 통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도서관 관련 단체와 세미나 공동 주최 및 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인터넷 웹 서비스

우리 포럼이 그 동안 개발해온 DLK&CU (Digital Library Korea& Cyber UNIV.)의 개발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저널 월간(지식공유)와 사이버신문 주간 <정보문화신문>을 발간할 예정으로 문헌정보전공 기자를 채용 양성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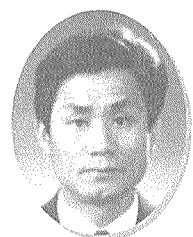
4) 첨단정보 컨설팅

우리 포럼은 디지털도서관, 가상대학, 멀티미디어교육 등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각급 기관에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도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문헌정보 전문가, 전산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획, 설계, 구축, 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회장 김태환



자료의 분담수집,
상호대차제도 및 원문제공
서비스 활성화 전개

1 지난해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에 따른 어렵고도 고통을 동반한 새로운 변화는 우리 협의회의 54개 회원

기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예산, 인력,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축소되어 왔고 이에 따른 정보관리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한 어수선한 가운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왔으며 이러한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되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일방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하에서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서관 자체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회원 기관은 장서구성에서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도서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서로의 부족한 정보자원을 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의 분담수집 노력과 상호대차제도 및 원문 제공서비스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정보기반의 모체로서 조직내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활동을 더욱 부각시킴은 물론 양적 팽창보다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도서관간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로가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첫째는 회원기관간의 정보자원 공유체제 강화를 위한 온라인 ILL 및 DDS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정착과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시스템 보완 및 개선.

둘째는 학술 및 기술세미나 개최, 교육 과정 개최 및 연구회(Study Group)의 조직, 운영 등의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회원의 자질향상 도모, 셋째는 회원기관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기관 기술정보담당부서의 활동과 조직 등을 수록한 회원기관 명부 발간.

넷째는 협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회원기관관리의 자동화와 상호대차기능강화 및 온라인 정보이용의 활성화 도모.

다섯째는 본 협의회외의 세미나 자료 등 출판물의 CD-ROM 제작 배포임.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회장 최정태



우리 도서관인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자성적인
노력절실

1 온 천지가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리고 있는 이 때, 도서관계도 역시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대학도서관은 학술 정보원 등의 이름으로 통합되어 본래 '도서관'의 사명은 물론 이름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공도서관은 열도당도 않은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주체까지 바뀔 지경이다.

1999년 한해도 지난해 이상으로 사정의 바람이 도서관 내·외적으로 여지없이 불어 닥칠 것이다. 이미 도서관 규모 및 예산의 축소는 물론 이거니와 조직 개편을 통한 임원감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도서관인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자성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 나라 '도서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1999년을 우리 도서관계의 재도약의 해로 삼아, 도서관인 모두가 도서관문화의 르네상스를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1) 학술활동의 강화 : 연2회 정기 학술 발표회 및 연1회 워크샵 개최
전국도서관대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 2) 학회 출판물의 디지털화 : CD-ROM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학회 출판물 Database 검색 및 원문보기
- 3) 학회 홈페이지 운영 : 학회정보 공개 및 회원간의 정보공유
- 4) 회원 규모 확대 :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회원 규모 확대 및 현장사서들

의 참여 유도

- 5) 외부 지원금 확충 : 기부금, 연구비, 정부지원금, 기업지원금 광고비 등 지원금 확충을 통한 학회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조성

이 설문은 공공도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부산지구협의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작은도서관전국협의회, 전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에도(총 22개 단체) 보냈으나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

제35회 전국도서관주간

1999년 4월 12일~18일

도서관,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